

2021 새해 새 설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 “남구형 디지털 그린뉴딜사업 발굴”

구도심-신도심 격차 해소 주력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개  
체육분야 인프라 구축 집중



“발전이 멈춘 구도심의 심장을 깨우고, 관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새 번영시대를 열겠습니다.”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은 21일 “2021년은 3년째 이어온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대촌동 일원 신규 산업단지 조성 성과 및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남구형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 발굴을 통해 남구의 경쟁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백운고가 철거 완료로 남구가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시기를 맞았다”며 “구도심의 정체성과 매력을 되찾아 신도심과의 격차를 좁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도심 발전은 도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발전 전략을 가다듬어 백운광장과 양림동, 사직동 등 대규모 뉴딜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구도심과 신도심간 격차 해소를 통해 남구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남구청 개청 이래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879억원을 투입하는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점을 강조하고, 2021년에 마무리되는 양림동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사업과 91억원을 투입하는 방림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백운광장의 랜드마크인 남구청사

미디어 파사드, 공중보행로, 스트리트 푸드존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림동 어울림센터와 청년창업소 등 10개 사업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게 남구의 계획이다.

산업구조 다변화와 고도화를 통해 도시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대한 기업 유치와 지방산단인 에너지밸리 2산단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남구형 뉴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파급효과가 뛰어나 도시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된다”며 “기업 활동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및 그린뉴딜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 혁신 성장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밸리 2산단 조성과 지역 정치권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인구 30만명의 자족형 경제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인프라와 안전·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면서 “유안근린공원에 힐링 숲을 새롭게 만들고, 호천 1지구에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생활권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빗고노인타운 실내정원 및 물빛근린공원 무장애 탐방길 등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안전망과 공공 돌봄 강화를 위해 구내 3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확대해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행복한 복지 남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및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육성에 나서 책임과 자율성에 기반한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문화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일상의 여유와 품격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5개 자치구 중 가장 열악한 체육분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모두 함께 아우르는 ‘남구 반다비체육센터’는 올해 완공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인 진월 복합운동장 및 송암생 활체육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사업을 추진해 22만 주민 모두가 일상 속 행복을 누리면서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활기찬 남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경기·부산,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시동

29일 광주시청서 결성식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참석할 듯

광주시와 경기도, 부산시가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이 막을 올린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AI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결성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결성식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800억원을 들여 플랫폼 구축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유니콘 기

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획해 2025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는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거점, 판교 테크노밸리 등 연구 시설이 있는 경기도는 연구개발(R&D) 거점, 의료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은 실증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초광역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각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초광역 협력 사업의 성공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희겸 본부장 광주보훈병원 방문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보훈병원을 방문해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상무지구~문화전당 교통신호 연동 차량 흐름 개선

광주시 10대 교통 시책 추진

광주 상무지구 신도심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원도심 사이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신호체계가 연동된다.

광주시는 21일 “소통 효율, 시민 편의, 도시 경쟁력, 교통사고 줄이기를 4대 정책 방향으로 교통 분야 10대 역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상무지구~문화전당에는 광주천변 도로를 중심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해 차량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경찰과 협의해 불법 주정차 등 걸림돌

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결과에 따라 대상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교차로 신호 주기가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곳이 없는지도 파악한다. 주정차 단속은 시민 편의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해제할 구간은 과감히 해제하고, 단속해야할 곳은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평탄한 갖길을 자전거 우선 차로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거점역 주변에는 자전거 주차장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역사·생태자원 활용 ‘섬 관광 개발’ 108억 투입

여수·강진·완도·신안·진도  
체험·테마 관광지로 개발

전남도는 올해 도내 섬 지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33억원 증액된 1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개 시·군의 섬을 다양한 테마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체험 및 테마 관광지로 개발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가 지원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여수와 강진, 완도, 신안, 진도 등 5개 시·군의 사업을 선정해 섬 관광 개발에 나

선다. 여수는 ‘섬마을 너울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화양부터 적금간 해상교량 개통으로 연륙된 조발·문병·적금도 일원에 관광객들을 위한 전망대와 광장, 산책로 등 편의 및 휴식공간을 구축한다.

강진은 ‘가우도 경관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체험형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한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섬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기리고 민족 역사의를 고취할 수 있도록 완도 소안도에 ‘항일운동 테마공원’을, 신안 장산도에는 ‘역사문화관’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선박이 오가는 길목에 섬 이름을

설치해 찾아가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진도 ‘섬 관광 이미지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전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패턴의 변화로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이 늘고 섬 관광이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섬 관광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코자 섬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중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 자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섬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략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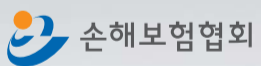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친환경 과수·채소단지’ 조성 500억 국고 건의

전남도가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국비 500억원 지원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와 인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친환경 과일·채소류의 소비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3년 전부터 자체사업으로 매년 30억원을 투자해 과수·채소 전문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6000여ha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가 67%로 가장 많고 고구마·감자 등이 28%, 과일과 채소류는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친환경 과일·채소류의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